‘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불교’가 늙어가고 있다. 40~50대에서는 종교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인 비율이 20~30대에서는 30%대로 떨어지고 있다. 2003년 통계청 종교활동 참여인구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10년 후 불교는 ‘대한민국 제1종교의 자리’를 개신교에 내줘야할 지도 모른다.

불교의 고령화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당연히 청년 포교에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포교의 현실이다.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군장병과 대학생 포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종단·단체 구분없는 ‘포교 공개념’ 정립하자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4월 9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전국 대불련 신입생 환영회에서 대학생 불자들이 리듬에 맞춰 율동을 배우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군선교에 대한 타종교의 막대한 물량공세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불교가 군포교에 ‘올인’할 때란 목소리가 높다. 법회를 끝내고 군포교사가 준비해 온 빵을 받는 군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캠퍼스

조직·지도자·지원체계 기독교에 뒤져
종단·동문 나서 템플스테이 등 활용을

▥ 무너지는 신행활동

요즘 대학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학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인해, 대학의 특징인 함께 모여 활동하고 고민하는 ‘조직문화’가 대학 캠퍼스에서 실종된 이미 오래다. 대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하기에도 바쁘다.

대학생 포교를 상징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이하 대불련)도 이런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대불련은 1963년 창립 이후 오랫동안 불자 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불련의 모습을 보면 40년 역사를 가진 단체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부족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외형상으로는 전국 23개 지부와 176개 지회로 구성돼 작지 않은 조직은 갖춘 듯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활동을 펴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지부중 동아리방 등 실질적 활동공간을 가진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뿐이다.

서울 지역 45개 지회 중 지도법사가 정기적인 법회를 주재하는 대학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불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 가는 간사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개신교 대학 선교단체 중 하나인 한국대학생선교회의 간사가 6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렇다보니 대학내 위상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불교 신행단체로서의 활동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불련 한승희 지도위원장은 “대학생 포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종단이나 사찰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제대로 된 사무실과 활동 인력 등 대학생 포교를 위한 물적 토대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찰·동문·재학생 유기적 관계 필요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학생 포교의 활로는 더이상 없는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국에 있는 사찰이 개별 대학 불교학생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구본사급 사찰이 대불련 각 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사급 사찰은 각 지회와 일상적인 신행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도법사 초빙과 신행활동 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화두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문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 후배들의 신행활동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후원자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학으로 알려진 인천대나 충남대, 계명대, 공주교대 등의 경우,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신행활동을 벌이고 있어 귀감으로 삼을만하다.

사찰 대학생회를 강화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현재 서울 봉은사와 불광사 등 일부사찰을 제외하고는 대도시 사찰에서도 대학생회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생회 활성화는 곧 젊은층 포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대학생회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템플스테이를 대학생 포교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템플스테이에는 불자 아닌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에 다가서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년 초 진행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MT, 각종 수련회 등을 사찰에서 진행한다면 말 그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불련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최연 사무총장은 “대학생 포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신세대 감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포교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불련도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군부대

‘초코파이 포교’ 이젠 옛말… 포교 전쟁터
1사찰 1군법당 후원 등 현실적 대안 절실

“우리 절 신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작정 쏟아붓기만 하겠어요?” ‘군법당 지원에 나서달라’는 주문에 대한 강원도 모부대 인근 ○○사 주지스님의 하소연이다. 스님은 “당장 빠듯한 예산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형편에서 군법당까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한다.

군포교의 현실이다. 군포교는 시급한 종단사업과 사찰업무의 다음 순위로 항상 밀려나기만 한다.

이유가 뭘까? 개신교 가톨릭 불교의 군포교 예산을 살펴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군종교구 종무실장 전창응 법사는 “개신교 군선교 예산은 1년 100억 원이고 가톨릭 예산도 50억 원 이상이다. 반면 불교 군포교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하다. 개신교의 논산훈련소 한곳 선교예산만도 1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고 밝혔다. 군종장교에서도 군승 숫자는 개신교 군종목사 276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매년 필요한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매년 6만 7천여 군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뿐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군 불자 숫자는 2000년 이후 15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개신교가 선교활동의 활로를 찾기 위한 군선교 프로그램인 ‘비전2020운동’을 통해 국군장병 75%를 신자화하겠다고 장담하고, 가톨릭은 95년 군종교구 출범이후 매년 군신자수를 빠르게 늘리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군불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 군포교 위한 종단협의기구 구성을

1968년 군승법사를 파견하며 군포교를 시작한지 40여년. 그러나 군포교 현장은 여전히 ‘초코파이 포교’에 머물고 있다. “내 절, 내 종단 일도 아닌 군포교는 돈만 들어가지, 해 봐야 생색도 안 난다”는 의식이 불교계 내부에 팽배해진 탓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포교공개념’에 대한 불교계 전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토지공개념처럼, 군포교활동을 어느 개인과 종단에 종속시키지 않고 범불교적인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범종단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군포교를 위한 인적 재정적 투자를 하면, 불교계가 거기에서 나오는 청년불자 증가 등 효과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이외 종단들은 이런 점에서 최근 출범한 조계종 군종교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군포교를 범불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 종단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군포교공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졌다면, 범불교 차원에서 군포교 현안을 논의할 틀을 갖춰야 한다. 그것은 모든 종단이 참가하는 군포교 관련 ‘종단협의기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불교계의 역량을 모은 후 군포교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익 및 후원사업, 1사찰 1군법당 후원체계 구성, 군승 군포교사 등 군포교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 실천돼야 한다.

불교 종단들보다 훨씬 개성이 강한 개신교 17개 교파가 군부대 선교를 위해 초교파적인 ‘군선교연합회’를 구성했다는 사실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군선교연합회는 “모든 교회가 군선교를 통해 미래 교인 양성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 군승 선발 및 교육 체계 확립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열린 조계종 군포교종책연찬회에서 일백 스님(연등국제선원 주지)은 “군포교의 핵심주체는 분명 군승이다. 포교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예비군승 선발 및 교육체계, 현역 군승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우수한 군승 자원수급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각종 위덕대, 천태종 금강대 등 불교계 대학의 군승파견이 이뤄져야 한다. 비구니스님의 군승활용, 가톨릭의 경우처럼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군종신부를 거쳐야 하는 ‘전면 요원제도’나 ‘전면 후보생제도’와 같은 제도의 실시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교육 및 관리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4박 5일씩 1년 2회의 연수교육을 시킨 후 군승으로 임명하는 현행 교육시스템으로는 우량 군승자원을 육성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역 군승교육 및 관리 장치 마련에도 불교계가 하루빨리 나서야할 것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제3회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9월 25일(일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님

● 일 시 : 2005년 9월 25일 월요일 오전11시 (음, 8월 22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9월 25일 (음, 8월 22일)
● 3재 : 양력 10월 9일(음, 9월 7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6일 (음, 10월 5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배내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선요 강좌 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서울 불교전문강당을 졸업하고 경전을 깊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자 모임을 구성한 경전연구회가 1차 육조단경 강좌에 이어 2차 「선요」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 재 : 선요 ■과 정 : 6개월
■강 주 : 각화사 고우 큰스님
■과 정 : 6개월
■일 시 : 매월 2째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저녁 6시 ~ 8시
■장 소 :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수 강 료 : 6개월 35만원 (저녁공양, 교재무료 제공)
■수강신청 : 9월 30일까지 (입금후 전화)
■개 강 일 : 2005년 10월 13일 오후 3시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002-04-057361(예금주:김묘경)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지장)
재무 011-9910-1025(진호)

※조계종 비구, 비구니스님으로 구족계 15년 이상인 스님에 한합니다.
※종단의 중징계를 받은 스님은 입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없이 3번이상 불참시하시는 스님은 차기에는 함께 공부할 수 없으며 수료증이 나가지 않습니다.
※경전강좌가 끝나면 옛날 큰스님의 수행처 및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사진 2매(수료증, 회원수첩)가 꼭 필요합니다.

경 전 연 구 회 일 동